

KAL 007 생존자들과 러시아 연방의 강제 노동 수용소

버트 솔로스버그 제공

대부분 사람들은 러시아에 아직도 강제 노동 수용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KAL 007기가 추락한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은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서 시작하여 소련 몰락과 러시아 연방이 들어서는 시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적어도 2천 만명의 사람들이-주로 요세프 스탈린 철권 하에서- 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수용소들 중 몇 곳은 외국인 포로들만 또는 그들을 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하나는 러시아 연방 통치하에 이 모든 수용소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런 강제 노동 수용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수용자들은 외국인 국적 소지자들로 강제적으로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기 위한 약간의 보상금 만을 받고 일하도록 수용된다.
2. 수용자들은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탈출하려 한 경우 위협, 빈곤, 고문 등을 겪는다.
3.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탐이 세워져 있고 그 곳에 무장 보초병들이 위치되어 있다. 즉결 처분도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4. 사적으로 가치를 두는 "모티브"들 뿐 아니라 개별화와 개인주의는 가차없이 억제된다.

위의 네가지 특성들은 현재 러시아 연방 수용소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접근 가능한 정보원 중 가장 공식적인 곳- 러시아와 다른 곳의 신문- 에서 증명된다. KAL 007에 관련하여, 이러한 강제 노동 수용소 중 여러 군데가 1990년 대에 몇명의 KAL 007 승객들이 강금되어 있다고 보고된 그 지역 안에 있다.

우리는 최근 뉴스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나라-북한-와 관련하여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최근 북한은 일본으로 부터 원조를 받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수상 구니치로 고이즈미에게 일본이 20년 동안 주장해 온 -11명의 일본 시민들이 납치되어 북한에 강금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납치된 사람들은 유럽을 여행하던 중 사라진 대학생들, 바다 해변을 산책하다가 북한 잠수함 잠수부들에게 잡힌 한 커플, 그리고 해변 근처 집에서 납치된 13살 소녀와 사업 출장 중 갑자기 "사라진" 한 사업가였다.

2005년 9월 5일 캐나다 네셔널 포스트가 보도한 바 대로, 이 사람들은 납치되었으며 이는 "북한 공작원들이 이들 신분을 훔쳐 일본에서 활동하는 간첩 공작원 조직 [소위 일컬어지는 소련 스타일 '신부 학교'-Charm School] 들을 연결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들을 세뇌시켜 간첩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남한에서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공식 통계치로 4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북한에 같은 방법으로 납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 숫자는 1,000명을 넘어선다.

현재 북한은 북한 시민 자체를 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체제주의자들 뿐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포함하여 30,000명이 넘는 숫자를 러시아 연방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즈, 2001년 4월 14일

평양은 소비에트 시대때 행했던 관습대로 여전히 빛을 갠기 위해 현재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걸쳐있는 목재생산 수용소에 강제 계약 노동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작년 북한은 이런 식으로 38억달러의 빛 중 5천만 달러 정도를 갠었다고 말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가엾습니다. 모두 세뇌된 것처럼 보여요.” 라고 프리모르예 (Primorye) 지역 이민 관리국 수석 대리인 타이시아 로즈한스카야 (Taisia Rozhanskaya)는 말한다. “그들은 [김정일] 초상화가 그려진 편을 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일 주일에 두번씩 정치 모임에 참가해야 하지요..”

아무르, 틴다 레스의 극동 지역에 있는 러시아 제휴 민간 주식회사에는 1,500명의 북한인들이 과거의 일이라고 흔히 치부되는 강제 수용소에서 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 틴다 레스의 총재 보좌관 이반 가예브(Ivan Gayev)는 이 노동자들이 임금은 받는지, 좋은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이 회사가 북한인들이 자른 목재의 66퍼센트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북한 정부가 가져간다는 사실은 언급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96년 이 수용소들이 북한에서 무자비하기로 악명이 높은 공안국에 의해 운영되며 공안국 감옥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사면 위원회는 또한 그곳에서 노동자들이 공안국에 의해 고문받고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도 보도했다.”

모스크바 타임즈 2001년, 8월 7일

그들은 노동 수용소에서 임금없이 일하거나 "하찮은 양의" 임금을 받아 나라가 모스크바에 진 빛을 갠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인권 위원회 직원들에 의하면, 적어도 과거에는 확실히 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수용소를 나갈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고문당하거나 처형되었다고 말한다...

스코츠맨, 2001년 8월 7일

그 수용소들은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수용소가 존재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진 55억 달러의 빛을 갠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진 빛에서 해마다 3천 5백만 달러를 삭제해 주고있다...

대략 30,000명의 북한인들이 기본적인 막사에서 자고 죄수복 스타일의 줄무늬 셔츠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임금없이 또는 적은 대가만을 받고 일했다.

“우리는 압니다,” 라고 뉴욕 주재 인권 위원회 (Human Rights Watch) 수석 대리인 레이첼 덴버가 말했다. “러시아 경찰도 북한인들이 머물러 있는 이런 목재 생산 수용소 감시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어요. 이는 분명히 강제 노동의 요소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몇몇 경우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감시원들이 러시아인이건, 아니면 그와 다르게, 북한인이건, 러시아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던, 아니면 툰다 레스와 같은 합작 주식회사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던, "러시아 연방 땅에 외국 국적 소지자 강제 노동 수용소가 오늘날도 존재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철저하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다.

KAL 007에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암시적이며 어떠한 결정적인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우리로 하여금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한다- 생명이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외국인 강제 노동 수용소가 위치한 대략적인 지역은 소비에트 연방의 교도소, 정신 병자 수용소, 강제 노동 수용소 연구 조사 기관인 이스라엘 연구 센터가 수상 착륙한 여객기에서 사로잡힌 승객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90년 중반 경 보고했던, 대체적인 그 지역이다. 그 곳은 동부 시베리아의 중-소 국경 지역과 평행하는 아무르 강 지역에 위치해 있는 조밀한 타이가 지역이다. 웹사이트 www.rescue007.org 에도 보여진 바에 따르면:

1983년 8월 31일 격추된 대한 항공 007기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획득한 지식은 소비에트 연방의 교도소, 정신병자 수용소, 강제 노동 수용소 캠프를 연구/조사하고 있는 연구 센터로부터 입수된 정보에 근거를 두고있다. 이 연구 센터는 사망한 고 아브라함 쉬프린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 스스로 소련 교도소 캠프 시스템 내에 강금되어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인이다. 정규군 (Red Army) 소령이자 크라스노다 지역 검사였던 그는 많은 이를 굴라그 (사상/정치범의 강제 노동 수용소) 에 보냈다. 그러다가 그 스스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역할을 한 것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가장 힘든 형무소에서 10년 복역을 선고받았다. 그런 다음 카자흐스탄으로 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다. 쉬프린씨는 소비에트 연방과 넓은 연계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그 지역과 그 연계망을 유지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가 엄청난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연계를 통해 획득된 것이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연구 센터가 조사한 결과 KAL 007기의 승객들과 승무원이 구조된 후 사할린에 있는 KGB 해상 보안대로 옮겨졌다는 확신을 얻었다. 며칠 안에 (1983년 9월 4일), 모두가 블라디보스톡 북쪽으로 대략 600 마일 떨어진 사할린 반대편 시베리아 대륙 소비에트카자 가반 (Sovetskaja Gavan)에 있는 KGB 기지로 옮겨졌다. 여기서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남자와 여자들은 바이칼-아무르 (Baikal-Amur) 철도로 내륙 쪽으로 약 800 마일 정도 떨어진 툰다로 옮겨져 그 중 적어도 몇 명은 강제 노동에 복역되었다. 어느 시점에 남자 어른들은 시베리아 대륙에 있는 많은 수용소들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미군 포로와 다른 외국인 죄수들이 강금된 곳도 있었다. 이들 수용소들은 외국인들을 위한 수용소로써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주위에는 마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통, 죄수들이 교도소 수용소에서 풀려나면, 그들은 감옥 근처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며,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게 되면서 수용소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외국인 죄수들은 풀려나지 않는다; 그 감옥 주위에는 마을이 전혀 없다.

정보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자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중국 국경에서 그다지 멀지않은 자포크로프스크 (Zapokrovsk) 마을 근처 아무르 강 옆 조밀한 침엽수림 타이가 지대에 위치한 3개의 최상급 비밀 감옥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전쟁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과 같은 수용소이다. 그곳은 매우 광대한 지역이다. 겨울에는 80-90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각각의 막사에는 두 세개의 난로가 있고 막사로 지은 집은 30여개 정도이다. 불운하게도, 이 지역의 삼엄한 경계로 인해 이 수용소에 들어가 승객들을 확인해 내려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외 다른 수용소들은 소련군의 극동관구 전투지역 본부인 시타 (Cita) 지역, 네르신스크 (Nercinsk), 네르신스키 자보드 (Nercinski Zavod) 등에 있었다. (FAQ 10번 질문: 살아남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소련 측에 의해 생포당한 후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지역은 조밀한 침엽수림 지역 틴다이다. 틴다는 시베리아 해변에서 내륙 방향으로 800미터 정도 들어가는 바이쿨-아무르 철도를 따라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특히 KAL 007 승객들과 관련된 지역으로 연구 센터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지역이다. (북한 노동력 중개업체로 관련되어 있는 틴다-레스 회사 또한 이 지역 이름을 딴 것이다.

시베리아, 틴다 지역에서 목재 벌목 작업에 배정되었던 한 어린 동양 여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어 있다. 1985년 이전, 그녀는 작업장 사고로 왼쪽 팔목 아래 부분을 잃었다. (FAQ 10질문: 살아남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소련 측에 의해 생포당한 후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공산주의로 빚어진 경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수백만명을 강제 노동 착취로 밀어 넣었던 소련시대 사고 방식은 러시아 연방 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수십년 지속되어 온 지불 방식체계 균형에 맞게 수천 수백명의 "계약 노동자"들을 제품처럼 받아들이는 관습을 고수하고 있다.

KAL 007에서 사로잡힌 승객들도 이러한 사고 방식의 위험에 빠져 버렸을지도 모른다.